

시드니, WEC 2004 총회 개최

2007년 로마, 2010년 몬트리올

WEC의 2003년도 연차회의인 집행이사회(Executive Assembly)가 지난 9월 9~16일간 우크라이나 Kyiv에서 개최되었다.

금년 집행이사회에서는 2010년 개최될 제21차 세계에너지총회(World Energy Congress) 개최지를 결정하는 표 대결에 최대의 관심이 모아졌다. 캐나다와 인도 2개국이 개최 유치를 신청하여 상당한 경합을 벌였다. 결과는 지난해 2007년도 총회 유치에 실패한 캐나다가 1백 20만 달러의 본부 기부, 300명의 개도국 전문가 참가지원(1백만 달러), Youth Programme 등 파격적인 공약 제시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유치가 성공하였다.

WEC는 통상적인 경우 총회 개최 5년 전 집행이사회에서 차기 총회 개최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의 경우 캐나다가 2010 총회 개최지 조기 선정을 요청하였고 미국,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회원국 다수의 동의에 의해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5년도 집행이사회는 스리랑카와 에스토니아 2개국이 개최 유치를 신청하였고 회원국의 투표결과 스리랑카의 콜롬보가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매번 2~3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여 치열한 경합을 벌여왔던 WEC 의장 선출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캐나다 HydroQuebec사의 A.Caille 사장이 단독 입후보하여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임기 3년의 차기(2004~07) 의장에 선출되었다.

집행이사회에서는 내년 1년 동안 본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지출예산 152만 파운드(약30억원)를 승인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04년 9월 시드니에서 개최될 에너지총회의 성공적 개최, 지난 2년 간 수행해온 7개 연구과제의 최종 보고서 완성, 2005-07 기간 워크프로그램 구상,

본부 에너지정보시스템 개선 및 회원국 행정서비스 강화 등이다. 한국의 2004년도 연회비 분담액은 6천만원(31,730파운드)으로서 호주 이태리 멕시코 등과 동일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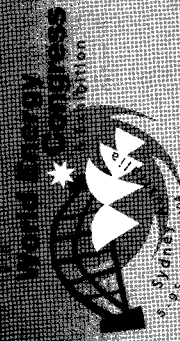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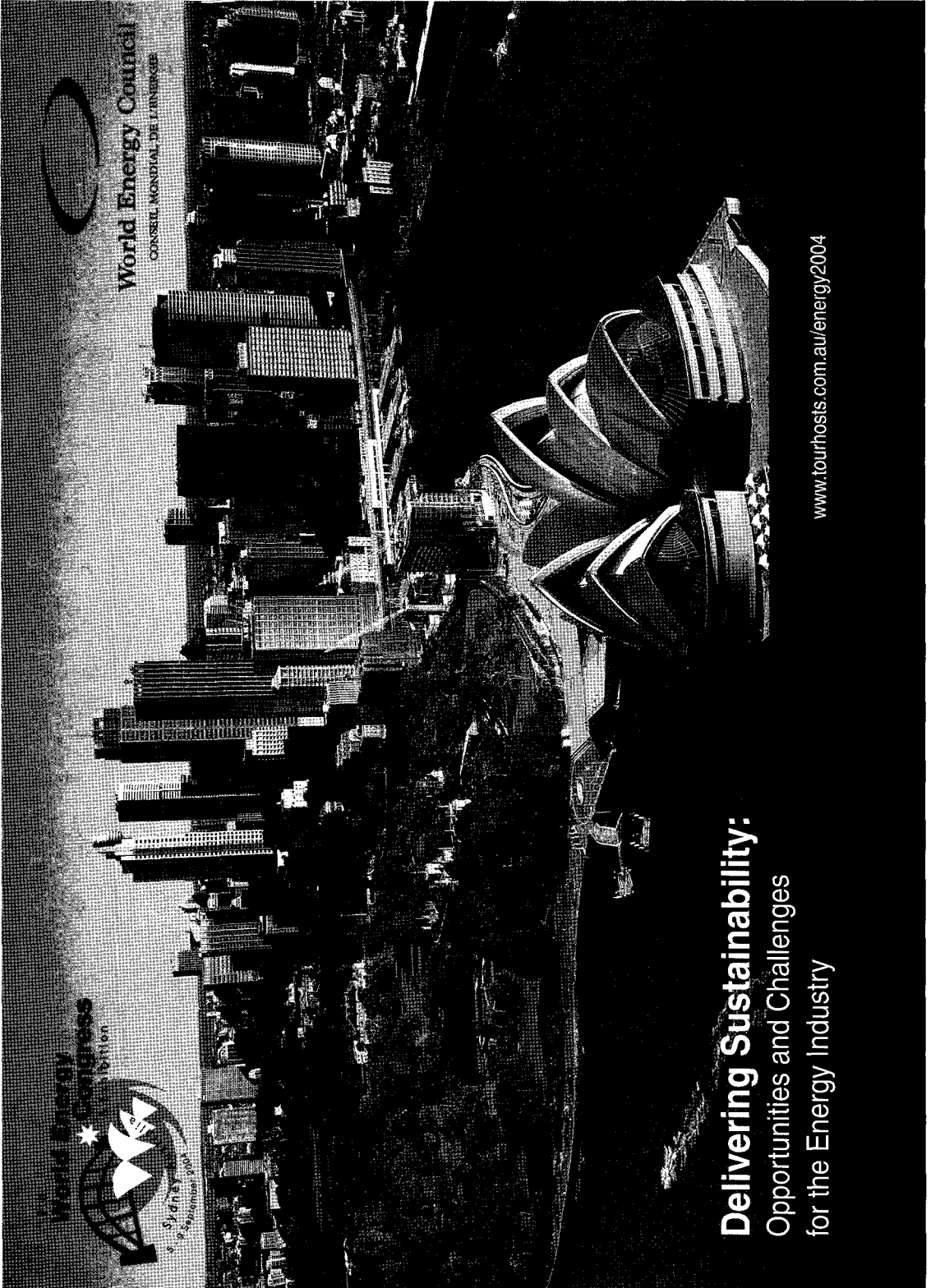
내년 9월 제19차 에너지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호주 조직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의 실현—에너지산업의 기회와 도전”(Delivering Sustainability—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the Energy Industry)을 주제로 이미 회원국과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논문을 모집하고 있고 WEC 본부와 공동으로 기조연설 및 토론세션의 발표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금년도 집행이사회 기간 중에는 ‘우크라이나 에너지의 날’ 행사를 통하여 지난 91년 독립을 한 이 나라의 에너지산업 발전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정부 및 업계 관계자의 발표가 있었다.

이 나라는 지난 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잘 알려져 있으며, 당시 사고가 발생한 원자로 이외에 동 발전소 내에 가동 중이던 나머지 3기는 지난 2000년 말까지 완전히 폐쇄되었다. 그러나 현재 원자력발전소가 국내 전력생산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정책의 핵심전략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로부터 유럽간의 에너지수송로 역할이다. 현재 석유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운송료로 받는 물량이 국내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에너지산업의 시장개혁’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 ‘對개도국 청정에너지기술 이전’에 관한 발표회, WEC의 상임 및 기술분과위원회, 지역별 회원국 회의, 회원국 사무국장 회의 등 각종 그룹별 회의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에너지협의회 사무국에서 함종철 사무국장과 이성룡 차장이 참석하였다.



Delivering Sustainability: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the Energy Industry

www.tourhosts.com.au/energy2004